

이슬람법의 근본

-하나님의 사도-

저자 : Dr. ABDUL WAHAB ZAHID

MUFTY KOREA

한국 이슬람 중앙회

목 차

머리말3
제 1 절 하디쓰의 기록19
* 성 꾸란의 특징16
* 예언자 무함만 시대의 하디쓰 기록19
* 정통 칼리프와 예언자 동료 시대의 하디쓰 기록34
* 선인 추종자들 시대의 하디쓰 기록46
제 2 절 예언자 시대로부터 4명의 이맘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이슬람법 .62	
1) 이슬람법의 정의62
2) 이슬람 법의 근원과 그 목적66
3) 이슬람 율법의 법원77
4) 이슬람 율법의 원천79
5) 사도님 시대의 이슬람 율법83
6) 예언자 동료시대의 이슬람 율법94
7) 선인 시대의 이슬람 율법	109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자 머리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찬미를 올리나이다. 나는 하나님이 단 한 분이심을 증언하오며 그 분이 우주 삼라만상을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지으신 창조주로서 그 분과 대등한 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함만(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시기를)은 하나님의 최후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알라(하나니)께서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예수 등을 각 시대마다 예언자로 선택하시고 최후의 사도로서 무함만(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시기를)을 택하사 계시의 말씀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예언자와 사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으로써 이들을 하나님과 동등시하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신격화 함은 하나님의 본뜻에 위배됨을 물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이슬람은 아랍인만을 위한 종교가 아닌 범 세계적인 하나님의 완성된 종교로서 최초 예언자이신 아담에게 계시하신 것과 최후의 예언자이신 무함만(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시기를)께 계시하신 것, 모두가 이슬람인 것입니다.

알라(하나니)께서는 최후의 사도이신 무함만(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시기를)이전에 예언자와 사도에게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항만을 부분적으로 계시하셨으나 마지막 사도이신 무함만(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시기를)에게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함만(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시기를)께서는 이를 전부 보다 정확하고 완벽하게 기록으로 남기시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성 꾸란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가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독자께서 이 책을 탐독하시는 가운데 모든 사항을 스스로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이슬람의 가르침을 터득하시고 바른 진리를 습득하신다면, 이 책을 펴낸 본인의 보람이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본인으로부터 배워가며 한글 번역을 도와주신 누릇딘 정규형 형제, 재 한글 번역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무스타파 선교사, 그리고 마지막 퇴고와 한글 교정에 도움을 주셨던 솔레이만 이행레이사, 이맘 압둘라쉬드 염보섭, 하미드 김현철 우마르 박채영 형제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 책을 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지고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바입니다.

1991.9.10

Dr. Abdulwahab Zahid
저자 압둘와합 자히드 박사
한국 이슬람교 중앙 연합회

제 1 절

하디쓰의 언어적 용어의 의미
사도님 시대의 하디쓰의 기록
정통 칼리프와 사도님의 동료시대
하디쓰의 기록
선인 추종자들 시대 하디쓰 기록

제 2 절

이슬람 법의 정의
이슬람 율법의 근원과 목적
이슬람 율법의 단계화
이슬람 율법의 법원
사도님 시대의 이슬람 율법
예언자 동료 시대의 이슬람 율법
따비인 시대의 이슬람 율법

제 1절 하디쓰의 기록

1. 하디쓰의 언어적 용어의 의미

하디쓰의 언어적 의미와 하디쓰의 학자들이 동의한 의미 언어학상으로써의 하디쓰는 옛것에 대한 반대 개념인 새 것을 의미한다. 많건 적건 모든 소식을 하디쓰라 부른다. 왜냐하면 소식이란 조금씩 점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디쓰를 꾸란과 대조적 의미로 사용코자 한다. 왜냐하면 꾸란은 영원한 것이고 하디쓰는 새 것이기 때문이다. 분량이 많건 적건 모든 소식은 하디쓰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이 하디쓰(소식)를 믿지 않는다면 슬픈 일이도다.” -알 카흐파장 :6-

‘무크따르 앓씨하흐’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하디쓰란 많건 적건 소식을 의미한다. 그 복수형은 불규칙 형태로 ‘아하-디쓰’(하디쓰들)이다.” 한편 ‘알파라’는 아하-디쓰의 단수는 ‘우흐드-싸’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이 하디쓰를 하디쓰의 복수형으로 사용한다.

우리는 하디쓰란 말과 소식이란 말이 의미상으로 동의어임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구 분야이다. 하디쓰를 말하고 전달하는 사람은 ‘무핫디쓰’라 부른다. 그래서 ‘핫디싸나’(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아크바라나’(우리에게 전하시길), ‘아크바라나’(말씀하시길)라고 말한다.

하디쓰의 용어적 의미

하디쓰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하디쓰의 뜻은 하나님의 사도님(축복과 평화가 깃드시길)이 전한 모든 것을 의미하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전달하는 사람을 ‘무핫디쓰’라고 부른다. 이브누 하자르는 말하기를 ‘이슬람 법에 하디쓰란 무함만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에게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디쓰란 말은 사도 무함만(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말씀에서 나왔다. 부카리가 전하기를 아부 후라이라가 사도님께 물었다. “사도님이시여 최후의 심판일에 당신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님께서 아부후레라여! 그대야말로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내게 하였노라. 그대는 하디쓰를 배우려는 열의가 있도다.”라고 하셨다. 또한 사도님께서 “최후의 심판일에 나의 변호를 받아 가장 행복하게 되는 자는 그의 마음과 그 스스로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외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하디쓰는 술어적으로 순나와 동의어로 간주된다. 누릇딘아뜨르 박사가 “말씀을 연구하는 하디쓰의 학문은 사도(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말씀, 행위, 묵인, 태도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묘사, 정확한 발음, 정확한 어휘의 기록을 포함하는 학문이다.”라고 말했다.

순나: 순나란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말씀, 행위, 묵인, 태도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디쓰는 순나와 동의어라는 하디쓰 학자들이 사용한 어휘이다. 한편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순나란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에 관한 모든 것으로써 의무가 아닌 것이고 와집도 아니다. 왜냐하면 순나란 이슬람교에서 의무적이요 필수적이 아닌 임의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율법학자들은 순나를 비드와(혁신, 이단적 교리)와 반대 개념으로 간주한다. 비드아란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우리의 종교에서 이슬람이 아닌 행동을 하는 자는 이단자이니라.”

하디쓰는 독립적인 학문이다. 수유서는 그의 저서 이르사-둘마까-시드에서 이븐 아크파-니 말씀하시기를 “서술적인 하디쓰 학문은 사도님의 말씀, 행위, 그것을 서술함과 기록 어휘의 정의함을 포함하는 학문이다.”

인식의 하디쓰 학문이란 전승에 대해서 전승의 조건과 종류와 의법 그리고 전승한 자의 상황과 조건 그리고 전승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전승이란 순나(하디쓰)를 전함과 전승의 인정함에 대해 말하고 전승자의 책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하디쓰 꾸드씨: 하디쓰 가운데는 성 하디쓰 하디쓰 꾸드씨라 불리워지는 하디쓰가 있는데 이는 선지자(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다. 성 하디쓰는 100편 이상이 되며 일부 무하디쓰들이 한권의 책에 모아놓고 있다. 하디쓰에 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말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고결하고 성스러움, 그리고 존경, 최상의 권능과 일치하는 말씀이시다.

하디쓰와 성 하디쓰의 차이점: 성 하디쓰는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도 무함만(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은 하나님을 대변하였을 뿐이므로 말은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으나 그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의도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의 하디쓰는 그 말씀과 의도가 모두 선지자 무함만(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성 하디쓰와 꾸란과의 차이점: 꾸란은 그 어휘나 의미, 그리고 의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무함만(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에게 계시되고 사도께서는 꾸란의 어휘, 자음, 의미를 수정하지 않고 계시받은 그대로 전한 것이다.

성 꾸란의 특징

성 꾸란과 꾸드씨의 구별은 아래와 같다.

- 1) 꾸란은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화나 수정이 되지 않고 원형 그

대로 보존된 현존하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2) 꾸란은 *무따와타르인데 모든 어휘와 단어, 그리고 모든 자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따와타르 : 이 말의 의미는 무함만(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 시대에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으로부터 꾸란을 듣거나 쓰거나 읽으므로써 가르침을 받은 많은 증거자들, 이들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진실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진실한 많은 증거자들로부터 다른 진실한 많은 증거자들이 또 듣거나 쓰거나 읽음으로써 가르침을 받았다. 이러한 진실한 분들을 통해서 가르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 없고 진실만이 존재한다. 무함만(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사후에도 새로운 진실한 많은 증거자들이 듣거나 쓰거나 읽음으로써 그 진실한 많은 증거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러한 진실한 많은 증거자들은 계속 그 수가 증가하고 진실한 많은 증거자들로부터 전해져 왔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 없고 진실만이 존재한다.

3) 꾸란은 아랍어가 아닌 다른 언어나 해석된 언어로 낭송될 수 없다.

4) 우두를 하지 않은자(무흐디쓰)와 부부관계를 가진자(*주누브)는 꾸란을 만질 수 없다.

* 주누브: 부부관계를 가진 후 샤워를 하지 않은자

5) 꾸란은 예배 근행시에 반드시 외워져야 한다.

6) 꾸란은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그 말씀도 존재하였으므로 꾸란으로 불린다.

7) 꾸란의 낭송은 하나님에 대한 숭배이며 자음하나 마다 10개의 선행이 있다.

8) 꾸란의 문장은 (아이얄)으로 불리우며 하나님의 뜻과 의지 그리고 어휘로 설명한 문장이다.

성 하디쓰는 그 뜻과 의도가 하나님의 것인 반면 그 어휘만은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것이다.¹

2. 예언자 무함만(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 시대의 하디쓰 기록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보존과 보호를 보장하시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도 무함만(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에게 계시를 통해 “내 율법을 내렸나니 이것이 바로 꾸란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1. 무함만 아자-즈 알카팁의 기록 이전의 순나 p. 22참조
하디쓰학의 새로운 방법 p. 31참조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꾸란이 변경과 수정으로부터 완전히 보존되고 자신과 자신의 추종자들의 말과 꾸란의 말씀이 혼용되지 않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사도 무함만(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초기에 꾸란을 제외한 어떤 것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자신의 언행과 묵인 등 순나의 기록도 금하셨다. 그러나 자신의 언행은 암기하도록 권장하셨다.

이맘 무슬림은 “그의 정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브 사이드 알쿠드리(라디알라후 안후)가 전하기를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나에 관해 적지 말라! 꾸란을 제외하곤 나에 관해 기록하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할 것이니라. 나에 관해 기록하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할 것이니라. 나에 관해 말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고의로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로써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시중을 헤어진 많은 예언자의 추종자들이 하디쓰의 기록을 삼가하였다. 예언자(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 시대에는 예언자(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생존해 계셨으므로 하디쓰의 기록을 하지 않고 필요한 사항은 예언자(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 직접 물어 보았으며 역시 사도님께서도 이미 하디쓰의 기록을 금하셨으므로 암기하도록 명하였다.

압둘 까이스의 대표단이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 왔을 때 사도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어떤 대표단인가? 그리고 그대들은 어떤 부족인가?” 그들은 대답하되 “라비아 족입니다.” 하니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그대들의 부족과 대표단을 환영하노라! 부담없이 편히 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우리는 먼 곳으로부터 오로지 당신을 뵈옵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저희와 이 곳 사이에 무다르라는 무리가 있어 하라-므 달(월)을 제외하고는 이 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저희 부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그들에게 4가지를 명하시고 4가지를 금하셨으며 유일무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명하셨다. “그대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은 “하나님과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라고 대답했다.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무함만(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증언하며 예배를 근행하고 희사를 하며 라마단 달에 단식하고 전리품의 1/5을 국가에 바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들에게 술을 담그지 못하게 하셨다.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들의 부족에게 전하도록

하라” 하셨다. 그들은 예언자(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거주하시던 지역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부족이었으므로 그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부족의 영토를 지나지 않고는 사도께 올 수 없었다. 그들은 적대 부족의 용맹성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므로 아랍인들이 서로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몇 개월 하람달 동안에만 사도(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를 찾아올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그들은 이슬람교에 대하여 생소하였으므로 자기 부족에게 돌아가 전할 수 있도록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자기들에게 교리를 내려주시기를 원했다. 그러나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그들에게 이슬람 교리를 기록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그대신 그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암기하여 그대들의 부족에게 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꾸란에 인간이 한 말이 혼합되지 않도록 꾸란 이외에는 기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신 나머지 취하신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예언자의 동료들이 알고 있는 바 예언자 기록을 금한 이유는 예언자(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꾸란에 자기의 말이 섞일까 두려워 했기 때문이었다. 예언자의 동료들은 기록의 금지와 더불어 그지의 이유를 잘 이해하였으며 이를 실천하였다.

그러나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동료들의 마음 속에 믿음이 뿌리내리고 신앙심이 만제되어 있으며 자신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믿었을 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허락하셨다.

부카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아부 후레후레라(라디알라후 안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동료 가운데 압달라빈 암르(라디알라후 안후)를 제외하고 나보다 하디쓰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디쓰를 기록하도록 허용된 반면, 나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압달라빈 암르의 기록은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에 관한 믿을만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그 기록에는 이븐 알 아씨-르가 말한대로 1000개의 하디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맘 아흐마드의 ‘무스나드’에 보존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 기록이야말로 예언자 시대에 하디쓰의 기록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가장 믿을만한 문서라고 묘사해도 무방하다. 그 기록은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압달라빈 암무르를 위해 주신 공식적인 법률 견해에 대한 결정적이고 당연히 결과였다. 왜냐하면 압달라빈 암무르가 기록 문제에 대한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법적 의견을 묻기 위해 찾아와서 “내가 듣는 것을 모두 기록할까요?”하자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그렇다”라고 대답하셨다. 그는 다시 묻기를 “화를 내거나 기뻐한 것도 기록할까요?” 하자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그렇도다! 나는 진실 외에는 말하지 않느니라”라고 대답하셨다.

아부 후레라의 이야기는 압달라빈 암르(라디알라후 안후)가 예언자(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 시대에 하디쓰 기록을 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그의 본명은 (아미르빈 슈하이브-하피)(드 압둘라빈 아무르)(압둘라빈 아무르)의 손자(아미르빈 수아이브)(라디알라후 안후)로서 낭송으로나 암송으로 기록된 하디쓰를 원문 그대로 전승하였다. 존경을 받을 만한 따비인(무자-히드 본 자브르)는 (압달라빈 암르)의 이 기록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록은 예언자(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히즈라 원년에 명하신 중요한 기록서였으며 그가 당시 메디나에서 시행하던 초기 이슬람 공동체의 헌법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그 기록서에도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필증사들이 써놓은 무하지룬(이주자)와 안사르(원조자) 그리고 유대인과 메디나 아랍인들의 권리가 적혀 있었다.

기록적인 어휘가 그 서두에 다음과 같이 분명히 나타나있다. “이것은 꾸라이쉬 부족과 메디나 주민 그리고 그들을 따라 함께 전투를 하였던 사람들로써 무슬림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도이며 예언자이신 무하만(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에 관한 것이다. 실로 그들 모두는 상호 동맹 관계가 아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티르미디에 의하면 사이드 본 우바-다 알안사리는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하디쓰 가운데 꽤 많은 하디쓰를 모아 놓은 기록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부카-리는 이 기록서가 압달라 빈 아비아의 기록서에 대한 사본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사므라투 본 준둡은 큰 사본에 많은 하디쓰를 모았는데 그의 아들은 그 사본을 전승하였다.

자비르 빈 압달라 역시 하나의 기록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슬림은 “그의 경전”에서 이는 대부분이 그것은 순례의식에 관한 것이었으나 그 하디쓰의 일부에는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고별 순례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압달라빈 압바쓰(라디알라후 안후)는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순나와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전기에 대한 기록에 관심을 가졌으므로 나무판에 기록했으며 가르칠 때에 그 분과 함께 가지고 있었다.

아부 후레라(라디알라후 안후)는 함맘 본 무납비흐에게 전수를 하였다. 이 위대한 예언자의 동료 아부 후레라(라디알라후 안후)가 수집한 많은 기록서는 그의 제자이며 예언자 사후의 추종자인 함맘 본 무납비흐가 전하는 하나의 기록서를 제외하고는 소멸되었다. 이 기록서는 함맘의 기록서라 불리고 있지만 사실은 아부 후레라(라디알라후 안후)의 기록서이므로 진품 기록서로 불릴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말한 이러한 기록서들은 부카-리와 무슬림 그리고 아흐마드가 언급했듯이 이를 기록한 사라들의 필사본들이야말로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일시에 사도의 허락을 받아 하디쓰를 기록하였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디쓰의 기록 금지와 하디쓰의 기록의 허용을 우리는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기록의 금지와 허용 사이에 모순되는 점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사실은 모순 되는 점이 없다. 왜냐하면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하디쓰가 혼합되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즉 따우지 훈나자르 일라 우술-릴 아쓰르)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바와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사도께서는 그들에게 하디쓰와 꾸란의 말씀이 섞이지 않도록 하디쓰의 기록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꾸란과 하디쓰가 혼합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면 하디쓰를 기록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하디쓰의 기록 금지와 허용간에 모순은 없다. 사도님께서는 자신의 말과 꾸란의 말씀이 뒤섞이지 않도록 하디쓰의 기록을 금하셨으나 예언자 동료들 가운데 사도의 말과 꾸란의 말씀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몇명에 대해서는 금지의 이유나 구실이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하디쓰의 기록을 허용하셨다. 결국 우리는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디쓰의 기록을 허용하셨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하디쓰의 기록 허용과 금지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볼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여! 성공을 도와 주소서.

3. 정통 칼리프와 예언자 동료시대의 하디쓰의 기록

예언자(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 시대와 정통 칼리프 시대에 하디쓰는 대략 그 초기 단계에 해당되어 하디쓰의 기록이 광범위하게 확장되지 않고 예언자(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 시대에 하디쓰 기록한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디쓰의 기록은 아마도 절박한 필요에 따라 더 많이 증가했던 것 같다. 정통 칼리프들은 하디쓰의 기록에 아주 엄격하였다.

우마르 빈 카탑(라디알라후 안후)는 예언자 동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하디쓰를 이야기하면 이 하디쓰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반드시 가져오도록 하였다. 정통 칼리프 시대의 4명의 칼리프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하디쓰를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신중하였다.

(1) 첫번째 이유는 기록에 의해 그 이야기가 유포되고 사도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 확산될 경우 꾸란의 말씀 혼동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꾸란은 예언자(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 시대에 필경사들이 기록한 것과 예언자의 동료가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록된 게 없었

다. 따라서 꾸란의 말씀 성 예언자 시절 아직 초기의 단계에 있었으므로 한 권의 책으로 보존되지 않고 다만 부분적으로 모아져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꾸란이 없이 하디쓰가 기록되고 또 사람들의 그 기록된 말씀을 대할 경우 새로운 무슬림들 특히 비아랍인과 꾸란을 낭송하는 예언자 동료들이 사는 지역과 멀리 떨어져 사는 아랍인들에게 꾸란의 말씀과의 혼동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렇게 되면 꾸란과 하디쓰가 혼합된 상태에 있게 되어 꾸란이 하디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큰 재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꾸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존하사 믿음이 강한 사랍족 예언자의 동료들을 예비하신 것이다.

(2) 두 번째 이유는 하디쓰를 아무나 기록을 방치할 경우 이단자들이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언행등을 허위로 기록을 하여 진실과 허위의 구별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특히 예언자의 동료들이 초기의 이슬람 영토(메디나)에 함께 거주하지 않고 아랍 영토에 흩어져 살 경우 진실과 허위의 구별은 더 어려워질 게 자명한 일이었다.

하디쓰가 꾸란의 말씀과 혼동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단자들이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에 대해 허위로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 시대에 하디쓰에 대한 기록을 금지시킨 주요한 이유였다. 만약 이슬람 공동체가 날조된 말을 믿고 꾸란의 말씀과 하디쓰가 혼합될 경우 이슬람교는 분열될 게 명약관화 하였다.

“알미스바-흐”의 저자가 하디쓰의 원칙에 관해 “예언자의 동료들은 누구나 하디쓰와 꾸란의 혼합을 염려하여 하디쓰의 기록을 삼가하였으며 꾸란의 기록에만 한정하였다. 하디쓰의 기록은 꾸란의 수집이 끝나고 예언자의 동료들이 하디쓰의 기록에 동의한 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돌아가셨을 때 꾸란의 수집은 칼리프 아부바크르 앓시디-끄(라디알라후 안후) 시대에 “우마르 빈 알카탑”(라디알라후 안후)의 건의로 시작되었는데 아부바크르는 이러한 건의를 받고 자이드 빈 싸이트에게 꾸란의 수집을 명령하였으며 그래서 수집된 원본은 제 1대 칼리프인 아부 바크르가 가지고 있다가 그 후에 제 2대 칼리프인 우마르 빈 카탑이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도의 어머니 합사, 오스만(라디알라후 안후) 시대까지 원본이 존속되다가 오스만이 합사에게 복사를 위해 원본 꾸란을 부탁하게 되었다.

하디쓰는 이미 언급한 대로 기록에 시행 착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기록을 금지하셨다는 이유로 예언자의 동료들은 그 기록에 대해 매우 엄격하였다. 아부바크르 앓시디-끄(라디알라후 안후)는 순나의 기록을 시도하였다가 중단하고 이미 기록

한 것도 소각한 적이 있었다. 우마르 빈 알카탐(라디알라후 안후)는 순나의 기록을 원했으므로 예언자의 동료들에게 이를 상의했던 바 그들 대부분이 순나를 기록하도록 충고하였다. 우마르는 그래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며 한달간을 망설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답을 내려 주셨는지 그는 말했다. “나는 순나의 기록에 대해서 그대들이 한 충고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니 유태인들은 성경과 함께 여러 권의 책을 기록하였고 그 책과 하나님의 말씀이 혼합되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과는 혼합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그는 순나의 기록을 포기하였다.

이 두 칼리프의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의 땀문에 순나의 기록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으나 처음에 두 칼리프는 생존해 있는 예언자의 동료들에게 순나의 기록을 지시한바 있었는데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칼리프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스스로 순나를 기록한 것으로도 보여진다. 이상 언급한 내용으로 볼때 우리는 순나를 기록하고 싶은 열의에 부응하기 위해 예언자의 동료들이 동의하고는 있었으나 이단자의 무리들이 거짓 하디쓰를 유포시킬 구실을 주지 않도록 외적으로 이의 기록을 금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웅변가 알바그다-디는 “기록을 싫어하는 사람의 혐오감은 다른 것과 꾸란의 기록이 섞이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꾸란에 대해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논자는 말하건대 우마르와 아부바크르의 하디쓰 기록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무슬림들이 꾸란의 말씀과 순나가 섞여도 구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또 언급한 대로 아부바크르와 우마르는 하디쓰를 기록하려고 시도했다가 중도에서 포기하였다.

그러나 두 칼리프는 무슬림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놓고 볼 때 이슬람을 왜곡과 수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꾸란을 이해할 때까지 꾸란 이외에는 기록해서 안된다고 생각했으며 하디쓰 기록의 필요성은 꾸란 기록의 필요성과 꾸란의 유실 방지 필요성 만큼 절실하지 않다고 간주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두 칼리프는 하디쓰의 기록을 금했었으나 우리가 고찰한 바에 따르면 우마르 빈 알카탐(라디알라후 안후)는 꾸란의 수집이 끝나고 꾸란 이외의 것이 꾸란과 혼합될 염려가 없어지자 자신이 신임하는 사람과 자신의 동료들에게 하디쓰를 적어 보냈다.

대부분의 예언자의 동료들은 하디쓰의 기록을 원했으나 그 보다는 꾸란의 말씀이 다른 것과 혼합되지 않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교가 잘못 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이 더 간절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언급한 대로 꾸란이 하나님의 경전이요 이슬람교의 본류이며 진

실한 이슬람 율법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순나는 꾸란의 해설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마르가 순나의 전승과 그 진실성에 대한 확증을 간절히 원했고 아부바크르와 그외 예언자의 동료들도 그러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이 행하신 그대로를 따랐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여망에 부흥한 것으로써 이러한 사실은 사도의 동료들이 하디쓰의 기록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되었음을 믿게 해준다. 우리는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꾸란과 꾸란의 말씀이 아닌 것이 혼합될 것을 두려워 하여 기록을 금했음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3. 선인 따-비인(예언자의 동료 추종자)시대의 하디쓰 기록

정통 칼리프와 예언자의 동료들은 이슬람교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진실로 헌신적이었다.그들에 이어 따-비인이 등장하는데 이들 역시 정통 칼리프들과 예언자의 동료들처럼 오직 꾸란의 보전에만 전력을 다하였고 이를 실천한 후 그들은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하디쓰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따-비인 시대의 초기에 그분들이 하디쓰와 순나를 정확히 암기한 분들이다. 그들 중에는 아부바크르와 우마르(라디알라후 안후)가 순나의 기록을 금한 것을 어길 수 없는 명령으로 기록으로 간주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며 예언자의 동료, 특히 두 칼리프 우마르와 아부바크르가 순나의 기록을 금지시킨 동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이 직접 기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신중하게 기록을 하도록 허락한 사람도 있었다.

하디쓰의 기록을 금한 사람들은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내가 하는 말을 암기하여 그대들의 부족에게 전하도록 하라”(무슬림이 전함)하고 하신 말씀과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나에 관해 말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무슬림이 전함)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금기의 근거로 삼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한 아부바크르와 우마르(라디알라후 안후)가 기록을 금했음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기록을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록을 금하였다. 예컨대 우바이다두 빈 아르루앗사라니 알무라-디와 이브라힘 빈 야지-드 안나크가 기록을 금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기록을 해야만 될 절박한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정통 칼리프들이 기록을 싫어하였다는 사실이 불과 얼마전의 일이었으며 그 풍조가 당대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고 느낀 사람들이었다.

우바이다는 그의 제자 이브라-힘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전한 하디쓰는 한 권의 기록서도 남기지 말라”고 당부했으므로 이브라-힘은 난 결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우바이다는 임종시에 자기가 적은 하디쓰 기록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찢어 없애면서 “나는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의도와는 달리 이해될수 있다는 게 두려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전한다.

하디쓰의 기록을 더욱 난처하게 만든 것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마치 사도님의 언행처럼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므로 만약 이의 기록이 허용되어 일반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기록을 하게 되면 그들의 개인적 견해도 함께 기록될까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자-비르 본 자이드가 사람들이 그의 의견을 기록한다고 들었을 때 반대를 하며 내일이면 다르게 말할지도 모르는 말을 적고 있는 모양이구나 하고 개탄한 점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록을 허용한 사람들은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압둘라빈 우마르에게 한말을 그 근거로 내세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기록하도록 하였다. 저명한 따-비인의 한 사람인 사이드 본 주바이르는 하디쓰를 몹시 기록하고 싶어하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븐 우마르 그리고 이븐 압바쓰와 함께 여행할 때 그들이 전하는 하디쓰를 나중에 기록할 수 있도록 낙타 안장 위에다 기록하곤 하였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사람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하디쓰의 기록 금지와 기록 허용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또 하디쓰의 기록에 대한 관념도 변화하여 엄격했던 기록의 금지가 기록에 대한 명령으로 바뀌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하디쓰를 기록하는데 대해 어떠한 부담과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사이드 본 무싸이브는 제자 압둘라흐만 본하르말라에게 암기력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면서 그가 듣는 것을 기록하도록 허락하였다. 또 앗샤으비는 “책은 학문을 보존하는 것이다”라는 그의 유명한 말을 자주 사용하였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나에게서 뭔가를 들으면 그것을 기록하라 비록 벽 위에라도”라고 말하였다 한다.

무자-히드 본 바크르 막키는 사람들을 자기방으로 데리고가 자기의 책을 꺼내줘 함께 갔던 사람들이 복사를 하였는가 하면 이타우브 라바-흐는 자기 스스로도 하디쓰를 기록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를 허용하였다.

타-다 본 다아-마 앗수두-씨는 기록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어조로 무엇이 그대에게 기록을 꺼리게 하는가? 그 지식은 하나님 계신 곳에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느니라.”

우마르 본 압둘 아지-즈(라디알라후 안후)는 긍정적으로 하디쓰의 기록을 명

령하였다. 즉 그는 아부바크르 본 하즘에게 메디나에 있는 자기 시종을 보냈서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조사하여 기록하라 나는 지식이 상실되고 학자들이 없어지는게 겁이 난다”라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는 아므라빈트 압둘라흐만 알랑나-리와 알까-심 본 무하만 이븐 아부바크르가 알고 있는 하디쓰도 기록하고 싶어했으며 이븐 하즘에게 특별히 기록을 당부한 게 아니고 당시 병영 도시의 모든 태수들과 대학자들에게 이 일을 당부하였던 것을 보인다. 즉 우마르 빈 압둘아지-즈는 먼 변경 지방에 사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말씀을 조사하여 수집하라”고 명령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마르빈 압둘아지-즈는 우마르빈 알카탐(라디알라후 안후)의 염원인 즉 꾸란의 말씀과 하디쓰가 혼합될 것을 두려워 하여 포기했던 하디쓰 기록의 염원을 실천하였다. 이븐 하즘은 우마르가 보유한 약간의 순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메디나에 있는 순나를 전부 기록하진 않았던 반면 당대에 이맘 무함만 빈 무슬림 빈 쉬하-브 앗주흐리(히즈라력 124년 사망)는 이를 시행하였다. 가장 훌륭한 하디쓰 학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우마르 빈 압둘아지-즈는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에게로 가보라 했다는 데 이는 순나를 그 분만큼 알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무슬림에 따르면 그는 다른 사람이 전하지 않는 90개의 하디쓰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앗주흐리의 순나기록은 이맘 알부카-리, 이맘 아흐만 그리고 그 밖에 다른 하디쓰 기록서의 저자들이 택한 기록 방식과는 달리 그가 들은 예언자 동료들의 하디쓰 전부를 주제별로 분류하지 않고 전부 모아 놓은 것이었으며 아마도 거기에는 예언자 동료들의 말씀과 따-비인(무함만 추종자의 추종자)들의 법적 견해가 혼합되었던 것 같다.

앗주흐리는 그 후 무하디쓰를 취했던 바와 같이 최초로 기록된 하디쓰를 모은 사람이었으며 제국 전체가 그가 취한 방식으로 순나의 기록을 시작했다. 앗주흐리 바로 다음 시대에 최초로 하디쓰를 모은 사람은 이븐 주라이즈(히즈라력 150년 사망)와 이븐 이삭(히즈라력 150년 사망)이다. 메디나에서 사이드 본 아비 우루우바(히즈라력 156년 사망)와 아라비-아 본 수아이후(히즈라력 169년 사망) 이맘 맘 말-리크(히즈라력 176년 사망) 그리고 바스라에 함마-드 본 살라마(히즈라력 176년 사망)이 쿠파에는 쉰프안-앗싸우리(히즈라력 161년 사망)가 있었다.

전장에서 본 논자는 아부하니-파 안누으만 이븐 싸-비트는 최초 하디쓰를 모은 사람이며 그가 모은 하디쓰를 제자들이 전하였는데 그는 히즈라력 50년에 바그다드에서 사망했다고 전한다. 삼지역에는 아부 우마르 알아우자-이(히즈라력 181년 사망)와 씨트에서 하심(히즈라력 188년 사망) 카라

산에서 압둘라빈 아루바라-끄(히즈라력 181년 사망) 예멘에는 무암미르(히즈라력 153년 사망) 라이에는 자리-르 빈 압둘하민(히즈라력 198년 사망) 또한 수피안 빈 아이니히(히즈라력 198년 사망)이 슈으바븐 알하자-즈(히즈라력 160년 사망)등도 빼놓을 수 없는 사라들이다.

이들 모두는 동시대에 살았으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연대적으로 가장 빠른지 알지 못한다. 이들의 기록상의 업정은 진정한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말씀 사도 동료들의 말씀, 그리고 선인 따-비인의 법적 견해 가운데 진정한 사도님의 말씀을 선별하여 한 권의 책으로 모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알하-피즈 이븐 하자르는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디쓰를 한권의 책으로 모은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다. 하디쓰를 주제별로 모은 것은 앗샤으비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말하기를 이훈에 관한 이 책은 부피가 크다 이 책에는 이훈과 관련된 하디쓰들이 수집돼 있다고 하였다.

본 논자는 아부하니-파 역시 이슬람법에 관련된 하디쓰를 그의 책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각 장은 종래 유래가 없던 방식으로 배열 정리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세대 뒤에 암송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언급한 세대들에게서 하디쓰를 배웠다. 그들은 하디쓰를 배우고 주제별로 정리하여 하디쓰 학이 계속 발전하다가 드디어 이맘 알부카-리, 이맘 무슬림, 이맘 티르마디, 이맘 아부다-윗, 이맘 마-자 그리고 이맘 안나싸-이이 이르게 된다.

이맘 알부카-리는 부정확한 여러 하디쓰가 혼합되어 있음을 보고 정확한 것을 골라 개별적으로 한 권의 책에 수록해 두고자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디쓰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덜어주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유명한 저서 알부카-리의 정전을 집필하였는데 그 이전의 책은 정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뒤섞여 있어 그 전승자들에 대한 연구를 한 후에야 올바른 하디쓰를 고를 수 있다.

이맘 무슬림 본 하자-즈 역시 알부카-리 뒤를 따랐다. 그는 알부카리의 방법론에 영향을 받아 그 유명한 무슬림의 정전을 저술하였다. 이 두 분 이후에는 많은 학자들이 두 저서에 대한 설명과 풀이를 많이 하였고 이슬람 공동체 역시 이를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이 두 분의 대학자의 뒤를 이어 많은 책이 저술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쉰단 아비다윗(히즈라력 303년 사망) 툴미디(히즈라력 279년 사망) 하디쓰들이다. 이들 이맘들은 그들의 책자에 과거 그들 이전의 이맘들이 모아 놓은 책의 내용들을 수집해 놓았다.

모든 행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본 저자가 이 시대의 저명한 하디쓰 학자들 밑에서 이 책들을 탐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인도, 파

키스탄의 학자들은 본 저자에게 이 하디쓰 책자들과 관련해서 그들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허락해 주었다. 아흐잡 카라흐 지역의 마우에 사시는 저명한 하디쓰 학자 하비-브 아르라만 알아오자미, 그리고 파크루딘 아흐만 두류분디 출신으로 당시 인도의 두유분디 대학 총장으로 재임하셨다. 그리고 작고하신 인도의 라크후누시의 하디쓰 학자 클럽의 교수이신 하비블라-아 말란부리는 대학자로서 이슬람 대학 총장이시며 설립자였고 히즈라력 1397년에 작고하신 무함마드 유-스프 알바누-리 그리고 이외의 많은 분들이 낭송으로나 허락으로써 본 저자를 도와주셨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제 2절 예언자 시대로부터 4명의 이맘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이슬람법(피끄흐)

1. 이슬람법(피끄흐)의 정의: 언어로써의 피끄흐

피끄흐란 이해란 뜻으로써 “그 사람은 이해를 하였다”라는 문장에 나타나는 “이해”와 같은 뜻이다. “어떤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그에게 그것을 이해시켰다”고 할 때 피끄흐라는 언어가 쓰인다. 피끄흐란 이해를 나타내지만 “지식(알일무)”보다는 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지식(알일무)이 사물이나 대상의 외관을 안다는 뜻임에 반해 피끄흐는 사물의 비밀과 내재된 의미를 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알일무(지식)과 피끄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셨다. “나에게는 하늘과 땅의 보고가 있느니라 그러나 위선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리라” 즉 보고의 비밀은 피끄흐(이해)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안에 있는 보물 역시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는 알 수 없음을 밝히신 것이다. 알일무(지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 “나와 나의 사도 그리고 신도들에게는 영광이 있느니라. 하지만 위선자들은 알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이란 알일무(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또 그 영광은 외관상 드러난 것이므로 어떤 인간도 알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무슬림들이 관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의미로써의 피끄흐: 피끄흐란 하나님께서 예언자이시며 사도이신 무함만(살랄라후 알아이히 왓쌀람)에게 계시하신 율법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무크타-르 앓시히-흐]의 저자는 피끄흐에 관한 학문은 샤리-아학(이슬람법학)이며 피끄흐를 아는 사람이 [파끼-흐]이다. 그가 이해했다는 것은 그가 파끼-흐가 됐다는 뜻이며 그가 다른 사람을 이해시켰다는 것은 그가 알일무(지식)에 내재된 것을 다른 사람에

게 알렸다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븐 칼둔은 피끄흐란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과한 의무적인 행위(우주-브), 삼가해야 하는 행위(하즈르), 바람직한 행위(나드브), 혐오하는 행위(카라-히야), 허락된 행위(이바-하)를 깨닫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들은 꾸란, 순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여러 증거들에 나타나 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나면 그것이 피끄흐이다. 우리 조상들은 그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발체해 내곤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모든 파끼-흐(율법학자)는 [알-림](학자)들이다. 그러나 모든 알-림(학자)이 다 파끼-흐(율법학자)는 아닌 것이다. 예컨대 피끄흐는 다양한 종류의 학문 즉 신앙의 원칙, 신조, 교리 하나님에 대한 숭배와 그 방법, 인간 관계 그리고 사회 생활 등을 포괄적으로 취급한다.

2. 이슬람 율법의 근원과 그 목적

이슬람 율법은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추출해 내기 위해 의존하는 권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1) **꾸란**: 꾸란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도 무함만(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에게 계시한 성서이다.
- (2) **진실된 순나**: 진실된 순나란 사도 무함만(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말씀, 행위, 의양, 목인을 뜻한다.
- (3) **이즈티하-드(독자적 판단)**: [이즈티하-드]는 사도(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행위와 명령에 의해 고정되었다.
- (4) **끼야-쓰(유추)**: 끼야-쓰(유추)란 꾸란이나 순나에 증거가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그 문제들과 유사한 근거에서 유추하여 적용시키는 것이다.
- (5) **이즈마(합의)**: 이즈마(합의)는 사도(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이즈마(합의)를 분명히 밝히신데서 유래한다. 알리(라디알라후 안후)가 사도 무함만(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에게 “꾸란과 순나에 규정된 있지 않은 일이 사람에게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하고 묻자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믿는자들 가운데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협의하라 그 문제에 관해 한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하지 말지어다”라고 대답하셨다.

이슬람 율법의 목적: 이슬람 율법의 근본 목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바에 따라 제 권리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무즈타히둔(독자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법률학자에게는 새로운 권리를 창안할 권리가 없으며 다만 꾸란, 순나, 이즈마(합의), 끼야-쓰(유추)에 의해 나타난 율법과 그 율법

에 존재하는 증거들을 통해 다른 권리를 추적하고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무주타히둔]들에게는 일반화된 현상에 의존하여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이슬람 율법을 왜곡시키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슬람 율법은 이론적이 아닌 행동적이며 실천적이다.

인간 전체의 이익이란 이상을 기초로 이슬람의 근간이 주춧돌처럼 이슬람법에 확립되어 있다. 피끄흐(이슬람법)의 목적은 양면적인 관계로 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피끄흐(이슬람법)는 보편적인 규범과 건전한 율법적 이상으로부터 제정된다.

우리는 이 불멸의 이슬람 율법이 꾸란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슬람법의 기초는 다음의 주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1) 어려움의 제거: 어려움이란 일종의 구속이므로 이슬람 율법이 어려움의 제거를 기초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슬람교에 너희들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노라”라고 말씀하셨다.(알바카라장 157)

[진실로 어려움과 함께 편안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알인시라흐장)

[너희들이 편안함을 바라며 어려움을 바라지 않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알바카라장)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살람)께서는 “나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종교를 가지고 왔노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증거로 여행자들은 예배의 횟수를 줄일 수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라마단 달에도 식사를 할 수 있으며(쿠파인) 살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두꺼운 양말위를 쓰다듬는 것으로 예배를 볼 수 있으며 따얌뭉 등이 허용되고 있음을 내세울 수 있다.

(2) 의무의 극소화: 의무의 극소화란 어려움의 제거에서 비롯한 당연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의무가 많은 곳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꾸란을 읽는 사람은 꾸란에 나타난 의무적인 행위와 금지된 행위를 보게 되며 이때 알아야 할 내용이 그리 많지 않고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음을 깨닫고 만족하게 된다.

또한 꾸란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오히려 많지 않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사항이 많으면 꾸란의 내용을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믿는 이들이여! 질문을 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분명해지면 괴로움을 느끼게 될 질문을 하여 꾸란에 계시가 나타나면 그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분명해질 것이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나니 하나님은 참으로 관대하신 분이시라 너희들 이전에 어떤 부족도 질문을 한 다음에 이

단자가 되었었느니라”(알마이다장-101)

이러한 것들은 비단 금지된 것들에 한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묵인하신 즉 그 금지에 대한 침묵을 지키신 행위에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은 그 금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묵인하는 행위자가 되어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순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매년 순례를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 만약 내가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의무적인 행위가 될 것으로 내가 하는 말 이상을 묻지 말라. 그대들 이전의 많은 사람들도 많은 질문을 하였지만 모두 지키지 못하고 죽었노라.”

또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하나님께서서는 여러가지 의무적인 행위를 부과하셨으니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러가지 제한을 하셨으니 그 뜻을 어기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가지를 금지하셨으니 이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해 여러가지에 대해 침묵을 지키셨으니 그것에 대해 묻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잊고 계신게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셨다.

3. 이슬람법의 단계화

예언자(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오셨을 때 아랍인들은 여러가지 풍습에 젖어 있었다. 그 중에는 영생에 도움이 되고 이슬람 공동체를 형성시키는데 해가 되지 않는 풍습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멀리하길 바라시는 해로운 풍습도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점진적이요 단계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 계시를 무효화하는 수정된 계시가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아랍인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풍습 가운데 일부인 술과 노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꾸란의 내용을 빌어 “술과 노름에는 커다란 죄악과 유익함이 있으나 죄악이 그 이익보다 크도다!”라고 대답하셨다.(알바까라장-219) 그러므로 분명히 금지를 하신 것은 아니셨다. 그러나 분별이 있고 이슬람법을 아는 사람은 그 죄악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행위가 금지됨을 이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죄악이 많이 있다면 행위는 금지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금지된 행위는 죄악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를 금지시키고 허용하는 목적은 그 행위가 지닌 유익함이 악을 압도하거나 악이 유익함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술이 취한 상태로 예배를 보

지 못하도록 금지하셨다. “믿는 이들이여! 그대들이 술을 먹었을 때는 예배를 보지 말라. 왜냐하면 취한 상태에서는 그대들이 읽는 꾸란의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니라”(알마이다장-42) 이러한 금지는 첫번째 하신 말씀에 대한 취소가 아니며 오히려 첫번째 말씀에 대한 확인이다. 그런 다음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술에 대한 금지를 말씀하셨다. “믿는 이들이여! 술, 노름, 우상은 악마의 것이니라! 이러한 것들을 삼가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이러한 것들에 탐닉될 것이니라! 실로 악마는 술과 노름을 통해 그대들에게 적대감과 증오감을 불어 넣고 하나님과 예배로부터 멀리하게 하느니라! 그런데도 그대들은 이를 무시할 것인가?”(알마이다장-91)

이슬람 율법에 있어서 단계화의 원칙 외에 다른 원칙이 있으니 그것은 이즈말(개괄화) 타프실(설명화)이다. 이것은 맥카의 이슬람율법과 메디나의 이슬람 율법을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맥카의 율법은 꾸란에 자세하고 설명적인 계시를 거의 하고 있지 않으나 메디나의 율법은 맥카의 율법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설명적인 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민간의 상거래(구매행위등)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여러가지 법률이 근거하는 대부분의 귀절이 메디나의 귀절이며 맥카의 계시에는 신앙상의 문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도살의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맥카의 율법은 개괄적(이즈말)이며 메디나의 율법은 설명적(타프실)인 것이다.

4. 이슬람 율법의 원천-성 꾸란

성 꾸란이란 보호받은 하나님의 책이고 이슬람 율법의 기초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무함만(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에게 아랍어로 꾸란을 계시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의 사도에게 아랍어로 된 꾸란을 계시하였나니 너희들은 이해할 것이니라”하셨다.(유수프장-3)

하나님께서 꾸란을 위대한 사도의 기적으로 만드시고 믿는 이들이 꾸란을 낭송함으로써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믿는 이들에게 꾸란을 암기하도록 영감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책자에 기록하도록 하셨으며 왜곡과 수정으로부터 보호하셨다. 꾸란과 이슬람을 보존할 믿음을 지닌 종복들을 예비하셨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꾸란을 내려 보냈으니 꾸란을 암기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라”라고 계시하셨다. “꾸란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보존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알히즈르장-9)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부터 높은 훌륭한 사람들이 꾸란을 수집하여 암송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실천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집대성 되었다. 이들은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에 관한 것을 정확히 전승하였다. 그래서 꾸란은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암송자들과 기록된 책자를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전해져 오고 있다. 꾸란은 그 어휘 그 귀절 그 말씀이 확실하며 심판의 날까지 고귀하신 사도(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기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하라! 꾸란을 만들기 위해 인간과 악령들이 서로 도와 그들 모두가 힘을 다해 협조해도 꾸란처럼 만들 수 없다.”(알 이쓰라-88)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그에게 어떤 일이 닥칠 때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판결로써 여러 가지 말씀을 계시하셨다. 꾸란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에 부딪칠 때마다 23년 동안 조금씩 계시된 것이다. 꾸란은 불멸의 이슬람 율법에 대한 원천이다. 이슬람 율법에 대한 원천이다. 이슬람 율법 학자들은 수세대에 걸쳐 꾸란에 의존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의존하고 있고 심판날까지도 꾸란에 의존할 것이다. 꾸란이야말로 이슬람 율법에서 첫번째로 꼽는 원천이 되며 꾸란은 성숙한 이성과 일치하는 포괄적인 규범으로써 모든 것을 취급한다.

5.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 시대의 이슬람 율법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꾸란을 인간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 좌표로 삼고 그것을 지침으로써 행복해 지길 원하시어 그의 사도(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첫 번째 원천을 내려 주셨다.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법원, 즉 꾸란에 따라 판결을 하였으며 믿는 이들이 그것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였다. 지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우리(하나님)가 내려주는 것을 가르치도록 그대(무하만: 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에게 꾸란을 내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율법적 계시는 대부분 이슬람 공동체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계시되었다.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동료 마르씨단 알가나위를 맥카로 보내 이슬람에 귀의한 사람들을 메디나로 데려 오라고 하신 적이 있다. 그가 맥카에 도착했을 때 아름답고 부유한 집안 출신이며 다신교도인 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 청혼을 하였다. 이를 승낙한 그가 메디나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 고하고 결혼 승낙을 요구하였다. 그 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렸다. “다신

교도 여성들과는 믿을 때까지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다신교도 여성을 너희들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 여종이 더 좋으니라. 그녀가 비록 너희들을 유혹한다 해도. 다신교도 남성들과는 믿을 때까지 결혼하지 말라! 이슬람을 믿는 종이래도 그보다는 훌륭하느니라. 그가 비록 너희들을 유혹해도. 다신교도들은 너희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나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리라”

꾸란을 보면 믿는 이들과 불신자들에게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그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로 여성의 생리에 관해 누군가가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 질문을 하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여자의 생리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말하라 그것은 불결한 것이니 여자의 생리 기간 중에는 청결해 질 때까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지어다. 만약 청결해지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여자를 가까이 해도 좋다. 하나님께서느 죄로부터 회개한 사람과 자기 몸을 깨끗히 하는 사람을 사랑하느니라”(알바카라장-222)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내린 판결은 많지 않다. 꾸란 해설가들이 판결에 대한 근거로써 어떤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의 근거를 꾸란에서 보지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한 계시도 받지 못했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도(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 영감을 주어 판결을 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순나라고 불리는 것이데 발을 씻지 않고 신발을 쓰다듬는 행위만으로 예배를 볼 수 있는 것, 예배의 순서, 그 밖의 예언자로부터 나온 판결들을 예로 들을 수 있다.

순나는 이슬람 율법에서 꾸란 다음으로 중요한 법원으로 간주된다. 순나에는 예언자(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라)의 행위, 말쓰, 의향 등이 포함되고 있다. 두 명의 예언자 동료가 여행을 떠나 예배를 보는데 그들에게는 물이 없었다. 두 사람은 일단 예배를 하였다. 그런데 예배를 마친 다음 그들은 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자 한 사람은 예배를 다시 보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다시 예배를 보지 않았다. 두 사람이 예언자(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에게 돌아와 그 행위에 대해 사도님께 물어보았다. 사도께서는 그대들은 전부 순나에 따라 행동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배를 다시 근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대 역시 순나에 따라 행동했으며 예배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니라”하셨으며 예배를 다시 근행한 사람에게는 “그대에게는 두 배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는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동료들에게 독자적인 판단(이즈티하-드)를 권장하셔서 두 사람에게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이

즈티하드)을 허용하신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허용은 말로써 분명히 하신 것은 아니다. 사도님께서 말로써 분명히 허용한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아므르븐 아스에게 몇 가지 말씀하셨다. “그대가 판결하라...” 그러자 그는 “사도님이 계신데도 내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하였다. 사도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 틀리지 않으면 보답을 두 배로 받고 틀리면 한 배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또한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샤아드를 바니 꾸라이자 부족에게 보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중재를 한 바 있었다. 이것만큼 더 분명한 허락은 없을 것이다. 사도님께서 먼저 판단을 하신 다음 독자적인 판단(이즈티하드)을 명령하셨다.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자기 임의로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예컨대 사도의 명령, 사도의 결정은 모두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써 꾸란의 말씀에 따라 결정을 하셨다. 히즈라력 8년에 생긴 쇠사슬 전투 중에 이슬람군의 장군이었던 아므르븐 아스(라디알라후 안후)는 어느 추운날 밤 꿈에 부부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몸을 씻기엔 날씨가 너무 추었으므로 감기에 걸릴까 두려워 따암뭉(마른 세정)을 하고 아침예배를 근행하였다. 이 사실을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아시고 물으시기를 “아므르여! 그대는 부부관계를 한채로 아침 예배를 하였는가?” 그러자 그는 “저는 추위가 겁이 났습니다. 꾸란에도 너희들 자신을 스스로 죽이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시니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대답하자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이는 예언자(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숭배, 즉 예배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예이며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그것을 아셨지만 묵인하셨던 것이다. 예언자의 동료들은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 물어보곤 하였다.

알리(라디알라후 안후)는 좀 부끄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를 다른 사람을 통해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 물어 보았다. 이맘 알부-카리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알리 자신이 성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정액이 소량 배출 되었다. 그러나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 직접 여쭙어 보기가 민망하여 알마끄다드븐 알아스워드에게 대신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다. 사도께서는 “우두로써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언자의 동료들은 교대로 해가며 예언자로부터 이슬람 지식을 습득하였는데 부카-리에 따르면 우마르 빈 알카탐(라디알라후 안후)이 전하기를 “나와 메디나의 한 고지에 살고 있는 안사르 출신의 한 이웃이 서로 번갈아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을 방문하여 그의 가르침을 받았노라”하였

다.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그의 동료들에게 이슬람 율법을 가르쳤고 문제를 판결하였다. 여러분의 순나나 이슬람 율법에 관한 책에서 이러한 류의 많은 증거를 대하게 될 것이며 또한 거의 모든 것이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동료들에게 사도가 있는 곳에서 혹은 다른 곳으로 판건하여 어떤 문제에 대한 판결을 맡기셨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드르 전쟁 포로가 생겼을 때나 그 외에 일이 생겼을 때 사도는 무아-드 본 자발을 법관으로 예멘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경전에 의해 판결하라. 경전에 없는 것이라면 순나에 의해 판결하라. 그러나 순나에도 게재되어 있지 않은 문제라면 독자적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성공을 빌었다.

현대 법학자 앓다와-리-비는 말한다. “사도님께서서는 동료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자기의 면전에서 판결을 명하기도 하였으며 무아-드 본 자발(라디알라후 안후)을 예멘으로 보내 그에게 독자적으로 판단하라고 하였다.

6. 예언자 동료 시대의 이슬람 율법(피끄흐)

사도께서는 동료들에게 꾸란과 사도의 순나 그리고 독자적 유추(이즈티하-드)를 남기시고 돌아가신다. 그 후 이슬람의 영토는 확장되어 많은 비아랍 부족이 이슬람에 개종하였다. 이런 관계에 예언자의 동료들은 예언자(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시대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등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과 문제에 대해 꾸란이나 순나에 명확한 해답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아부 바크르 앓싯디-끄(라디알라후 안후)는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 타계하신 후 사도께서 생존해 계실 때 일어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과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예컨대 회사(자카-드)를 거부하는 배교자들의 문제와 신앙의 선언(싸하-다)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 등으로써 이들은 예배를 근행하면서도 자카드(회사)는 거부하였다. 이슬람 율법의 원리라는 책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부 바크르 앓싯디-끄(라디알라후 안후)는 그들이 예언자(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에게 회사하였던 것처럼 앓는다면 싸워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우마르는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찌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께서는 하나님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를 선언한다면 그들의 피와 재산은 보호받되 재산의 상당량은 제외하기로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부 바크르는 말하기를 “사도께서는 그 재산의 상당량은 제외한다고 하셨지 않았는가 그 재산의 상당량에는 예배를 근해하는 것처럼 회사를 하는 것이 포

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아부바크르의 말에 동의하였다. 우마르 알 카탐(라디알라후 안후) 역시 예언자와 전임 칼리프 아부 바크르가 겪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특히 로마와 페르시아를 점령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였다. 우마르(라디알라후 안후)는 국가의 재정 장부의 기록과 척박한 토지의 개간을 비롯한 꾸란과 예언자의 순나 혹은 전임 칼리프 아부 바크르 앓 시디끄(라디알라후 안후)가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은 그 밖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판결을 새로 마련해야만 했다. 아부 바크르와 우마르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동료들을 모아 자문을 구했는데 예컨대 아부 바크르는 제일 먼저 꾸란의 귀절을 검토하고 그 문제에 관련된 귀절이 있으면 그것으로 판결을 내렸으며 꾸란 귀절에 없으면 예언자의 순나에 따라 판결했다. 예언자의 순나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예언자(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살람)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판결했는지 아는가를 물어 보았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예언자께서는 이렇게 판결하셨습니다.”라고 선례를 말해준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알 수 없을 때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였다. 우마르 역시 그러한 방법으로 판결을 했으며 오스만과 알리 또한 꾸란과 하디-쓰에서 근거를 찾지 못할 때는 동료 법학자들을 모아 자문했다. 특히 우마르(라디알라후 안후)는 꾸란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을 하였을 때로는 어느 귀절에 게시된 때의 본 뜻이 소멸하였다고 믿어 그 귀절을 어기기도 하였다. 이슬람 율법의 원칙이라는 책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슬람의 박해자에게도 회사금의 일부를 할당해 놓고 있는데 이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실로 자선금은 거지들과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에 따른 것이다.(아따브바장-60)

그러나 우마르는 이 귀절을 불별한 것으로 받아드리지 않고 그 게시의 의도가 이슬람 때문에 박해 받는 사람에게 자선금의 일부를 줌으로써 이슬람을 강화하려는데 있다고 이해하였다. 그래서 이슬람이 강력해지고 무슬림의 수가 많아진 지금 그런 식으로 회유하는 것은 치욕적이고 굴욕적이라고 생각하여 이슬람 때문에 박해받는 자에게 주던 자선금의 일부를 금지시켰다.

무슬림들이 이라크와 시리아를 점령하였을 때 지하드 참가자들에게 전리품의 4/5가 분배되고 1/5만이 꾸란의 귀절에 명시된 대로 공공이익에 사용되었는데 꾸란 귀절에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획득하면 하나님의 사도, 사도의 가족, 고아, 빈한한 자, 여행중인 자를 위해 그 1/5을 바쳐야 하느니라”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므로 무자히딘(지하드의 용사)들은 그것을 청하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우마르(라디알라후 안

후)는 이 귀절에 동산에만 적용되며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고 그 경작자는 매년 국가에 세금을 바쳐 그 돈으로 이라크와 시리아 그리고 그 밖의 이슬람 변경에 주둔한 군대의 주둔 비용과 고아와 빈한한 자들에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만약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나오는 돈으로 변방을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얻은 것 만큼 얻지 못할 다른 나라를 점령하여 그 주민들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가난한 자들을 무슨 돈으로 지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은 그의 현명한 판단과 해석에 동의하였다고 전한다. 우마르(라디알라후 안후)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는 우마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다. 이외에도 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판결 사건은 허다하다. 한편 많은 예언자의 동료들에게는 독자적인 판단이 확립되어 있어 판결 선례에 따라 판결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압둘라 빈 마쓰우드 이슬람 율법사에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사도님(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 시대에는 율법적 판결을 사도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사도에게 계시된 꾸란이나 사도의 순나를 통해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판결에 대한 근거나 출처에 대한 믿음이 필요가 없었으며 특히 사도(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면전에 있었던 무슬림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사도께서 돌아가신 후 어렵고 복잡한 사건들이 허다하게 발생하였고 더욱이 이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꾸란이나 순나에서는 찾을 수 없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판결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합의(이즈마)와 유추(끼야-쓰)가 있었다.

대학자 이븐 칼둔은 합의(이즈마)와 유추(끼야-쓰)가 예언자 동료시대에 발생하였으므로 이슬람 율법의 법원이 4가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사실이다. 예언자의 동료들 특히 그 중에는 꾸란의 낭송자, 율법자 등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추를 하였으며 또 합의(이즈마)란 율법학자인 예언자의 동료들이 합의한 것이다. 예언자의 동료 가운데 한 명인 슈라이흐는 우마르가 자기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전하고 있다. “만약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꾸란에 의해 판결하십시오. 꾸란에도 근거가 없고 예언자의 순나에도 근거가 없으면 사람들이 동의하는대로 판결하십시오.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당신의 의사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기에 판결을 늦추고 싶다면 판결을 연기하고 그 문제를 나에게 보내십시오” 우마르가 슈라이흐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으로 볼 때 합의(이즈마)를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븐 까이임은 “예언자의 동료들이 법률적 사건에 부딪쳐 올 때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고 유사한 판례에 따라 유추를 하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예언자

의 동료들은 노예에게 결혼이나 이혼에 있어서 평민 이상의 자유를 주었는데 그 근거로 꾸란의 내용 “만약 결혼한 노예가 간음을 했을 경우 그 노예들에게는 정숙한 여인이 받는 고통의 절반을 받는다”를 들고 있다.(안니싸이-4)

우마르 빈 알 카탐(라디알라후 안후)은 법관 아무부사 알아슈아리(라디알라후 에게 독자적인 판단을 하라는 서한을 보내면서 “우선 비슷한 선례를 찾은 후 판결을 하십시오”라고 당부하였다. 우마르가 보낸 이 서한을 받은 사람중에는 아무부사 알아슈아리도 있었는데 그는 당시 가장 저명한 법관이었다. 우마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서한을 그에게 보내 유사한 판례를 찾은 다음 판결하라고 명했다.

예언자의 동료들은 사도(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살람)로부터 여러가지 지식을 배워 이에 준해 판결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은 선택해서 위대한 이슬람 공동체의 확립이란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역경과 어려운 문제들을 관대함과 현명함, 그리고 분명한 판결로써 대처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새로운 움마(무슬림 공동체)에 당면한 문제들을 가장 평화적이고 안전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예언자의 동료들이 정치, 경제 사회생활과 개인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택한 원칙들은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써 꾸란 그리고 두번째 법원으로써의 순나, 세번째 합의(이즈마)와 독자적인 판단(이즈디하드) 그리고 네번째 법원으로써 유추(끼아-쓰)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자와 추종자들에게 이상 4가지 법원들을 가르쳤으며 그들 이후의 이맘들 법학자들도 이 4가지 법원에 입각하여 판결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율법을 보존하신 것이다. 예언자의 동료들은 유추(끼아-쓰)를 자신들의 견해로 간주하였다. 우마르(라디알라후 안후)는 자시의 서기가 자기의 의견을 기록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마르의 견해이다. 그대는 참으로 엄청난 실수를 하였다. 그것은 나의 의견일 뿐이다. 왜냐하면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만약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우마르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순나란 하나님과 그의 사도가 규정한 것이므로 잘못된 의견을 순나로 적지 말라.”하였다. 이브라-힘 안나크이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지 않고 첫날밤 침실에 들기전 죽었다. 압둘라 본 마쓰우드리는 “그 여인에게도 다른 여자들과 똑같은 결혼 지참금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다시 말하기를 “만약 그 판결이 옳았다면 이는 하나님이 판결한 것이다. 정녕 하나님과 그의 사도는 결함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였다.

7. 선인(따-비인) 시대의 이슬람 율법(피끄흐)

선인(따-비인)들은 예언자의 동료들이 예언자한테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율법에 대한 지식을 예언자의 동료들한테서 직접 배웠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슬람 율법의 법원은 동료들의 법원과 마찬가지로였다. 예언자 동료로부터 지식을 전수받은 따-비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제 1부류: 이들은 예언자의 동료들로부터 들은 사도의 말씀과 행위, 묵인으로 인정한 법적 견해등을 모두 전승하는 하디쓰의 학자들이다. 이 부류는 예언자의 언행이 인도하는 바 혹은 그러한 언행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이유등을 알고하지 않고 말씀 그 자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제 2부류: 이들은 하디쓰 예언자의 동료의 언행, 그리고 예언자와 예언자 동료시대에 동의된 모든 것들을 암기한 법률학자들로서 이 언행의 이유나 동기들을 이해하였으며 취소된 말과 새로운 말을 알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의해 독자적 판단을 하였으며 비슷한 판례에 따른 다른 사건을 판결하였다. 첫번째 부류는 아흐 알하디쓰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이슬람 율법사에 보면 그리하면 아흐 알하디쓰(하디쓰 중시학파)와 아흐 아르라이(독자적 견해 중시학파)가 생겨났다. 하디쓰 중시학파는 하디쓰의 동기나 배경에는 관심이 없이 그 문자적 표현을 중시하여 독자적인 견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반면 독자적 견해 중시학파는 그 동기와 원인 그리고 문제들간의 상호조화를 중시하며 없을 경우 독자적 견해를 사용하였다. 히자-즈 지방 주민의 대부분은 아흐 알하디쓰였으며 이락지방 주민의 대부분은 아흐 아르라이(지식이 많은 철학자)견해를 사용한 자였다. 사이드 븐 알부 싸이입은 라비-아가 판결의 원인을 물어오자 “당신은 이라크 사람이요?”하고 말했다고 한다.

사이드 븐 알무 싸입의 말로 볼 때 이락 사람은 어떤 판결에 대한 원인이거나 그 판결의 의도 등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아흐 알하디쓰는 문자적 표현이나 자구에 집착하여 독자적 판단을 삼가였다. 이맘 알무하디쓰 앓샤으비(라디알라후 안후)는 쿠파의 하디쓰 학자로서 전형적인 하디쓰 중시학자였다. 한번은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어른과 함께 어린이가 죽었다면 그 둘의 피값은 똑같은가 아니면 어른이 더 아는게 많으니까 더 비싸겠는가?” 사람들이 “똑같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어떤 것에도 유추는 없다. 차이는 그 두어른에게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앗샤으비와 그를 추종하는 하디쓰 학자들은 순나를 중시하여 순나를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또한 순나에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자신의 의견으로 판단하려 하지 않았다. 사이드 븐 알무 싸이입은 아흐 알하디쓰의 법률학자로서 라비-아가 그에게 손가락의 피값에 대해 합당

한지 물었을 때 그를 비난하였다. 메디나 주민들은 이 라비-아를 “독자적 견해를 중시하는 라비-아”(라비-아 아르라이)라고 부르곤 하였다. 법관 압들라본 씨와-르는 “나는 라비-아 만큼 독자적인 견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두번째 부류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브라힘 안나크이로 이락의 법학자였다. 그는 이락 출신의 아부하니파의 교수인 하마-드븐 슬레이만의 교수이기도 하였다. 이브라힘은 그의 숙부 까비븐 끼이스 안나크이로부터 이슬람 율법을 배웠는데 그는 숙부의 예언자 동료시대 이후의 가장 저명한 이슬람 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브라힘은 쿠파의 하디쓰 학자 암미르븐 샤라-힐 앓 사으비와 동시대의 사람이었다. 이브라힘 안나크이와 그를 추종하는 이락 출신 율법학자 그리고 일부 메디나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공식적 법률 견해에 있어서 꾸란과 순나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율법은 반드시 제정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바로 그들이 이 율법 제정의 목적을 고찰하여 꾸란과 순나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에 적용할 기초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다. 예언자의 동료들은 그들에게 닥친 문제들 가운데 꾸란과 순나에 해결 근거가 없는 경우 공공목적 즉 율법 제정의 목적에 대한 고찰의 결과로써 그들의 의견을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언자의 동료들 특히 정통 칼리프들이 어떻게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 판결을 내렸으며 꾸란이나 순나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유추(끼야-쓰)를 사용하도록 명령 하였는지를 살펴 보았다. 꾸란, 순나, 예언자 동료의 말씀, 그들의 법적 견해와 합의는 다음 세대의 율법 학자들이 이슬람 율법적 판결을 도출해 내는데 사용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면 앞서간 예언자 동료들의 선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판결하였다. 그들은 어떤 확립된 판결이 없을 경우 그들의 이성에 따라 판결하였으며 이 배경에는 그들의 신앙심과 이슬람에 대한 헌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마르 빈 알카탐(라디알라후 안후)은 그의 법관 아부 무사알아슈아리(라디알라후 안후)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 보냈다. “이해란 꾸란과 순나에 없는 것으로 당신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먼저 비슷한 사례나 판례를 조사한 후에 그 문제에 대한 판결을 하십시오.” 이빈 칼둔은 말한다. 이슬람 영토가 확장되고 기록의 시행, 율법이 완성되어 하나의 학문이 되었을 때 낭송자(까-리)라 불리우는 대신 율법학자(파끼-흐)와 학자(알-림)라는 칭호가 사용되었다. 이슬람 율법에 대한 이해의 방식은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독자적 판단을 중시하는 학파가 택한 방법으로 주로 이라크 출신 학자들이 이 방법을 채택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하디쓰 중시학파로써 히자-즈 출신 학자들이 여기에 속하였다.

이라크 주민들에게는 하디쓰가 많지 않아 유추를 사용하였으므로 아흘 아르라이로 불리웠다. 이 학파의 대두는 아부 하니파 히자-즈 출신의 이맘 말-리크 본 아나쓰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샤-피였다. 그 뒤 일단의 학자들이 유추를 부정하고 무효화하였는데 이들이 꾸란을 그 문자적 의미로 해석하는 학파(알자-히리야)이다. 이들은 유추를 부정하였는데 이 학파의 이맘은 다윗 이븐 알리와 그의 아들 그리고 제자들이었다. 나는 이븐 칼둔과 그의 견해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평을 가하려고 한다. 이븐 칼둔은 “이라크 주민들에게는 하디쓰가 많지 않아 유추를 사용하였으므로 아흘 아르라이로 불리웠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올바른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디쓰는 시리아에 있었던 만큼의 분량은 이라크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라크에 입국한 예언자의 동료들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들은 이라크에 정착하여 이슬람학을 가르쳤으며 학문적으로도 순수한 예언자의 동료들이었다. 이들은 압둘라본 마쓰운, 암마르 이븐 야-씨르, 아나쓰본 말리크 등으로써 모두 예언자(살랄라후 알라이히 왓쌀람)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신 “나에 관해 말을 하는 것은 자유이다.”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도 이라크에 하디쓰가 많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일 수 있겠는가?

이라크에는 하디쓰 학자인 앓싸우리 이부 우야이아나 그리고 이들이 전에 앓샤우비 안나크이 등이 있었다. 한편 하디쓰의 전승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은 이해 할 만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들은 하디쓰와 그 하디쓰에 대한 전승 과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맘 알하피즈에 알아오마슈(라디알라후 안후)를 예로 들어보자. 한 남자가 그에게 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하기가 궁했으므로 아부 하니파에게 “그대가 답변하라”고 당부해 아부 하니파는 그 지문에 대해 길게 설명을 하였다. 이때 알아오마슈는 아부 하니파에게 그 판결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하고 대답하였다. 알아오마슈는 “됐다. 그대는 내가 1년동안 이야기하는 것을 한 시간 동안에 나에게 말해 주었구나 그대야 말로 의사요 우리들의 약사이다.” 하였다.

왜냐하면 약사는 약을 모으긴 하지만 어떤 병에 사용하는지는 모르며 의사는 그 약을 필요한 병에 치료제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율법학자들은 이슬람 공동체의 의사로 하디쓰 학자를 의사에 비유한 것이다.

나는 아부 하파의 제자들이 전승한 하디쓰가 별로 없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들의 스승이 하디쓰 전승에 관해 몹시 엄격하였기 때문이다. 아부 하니파는 최초 전승자가 하디쓰를 암기했던 그대로 전승되지 않으면 그 하디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 가운데 저명한 하디쓰 학자, 예컨대 압둘라본 알무바라크와 같은 사람들이 배출되었

다. 그에 관해서는 그의 제자들이 많은 책을 전하고 있다.

아부 하니파는 최초로 지식을 각 부류별로 분류하고 여러 가지 장으로 정리한 사람이다. 그가 죽은 후 메디나의 이맘(말리크) 그의 뒤를 이어 이맘(샤-피) 그리고 그를 이어 이맘(아흐만)이 출현하였다.

올바른 길고 좋은 의도가 있도록 하나님께 빕니다.

1991년 9월 25일

저자 압둘와합 자히드 박사(Mufti korea)

한국 이슬람교 중앙 연합회

저자 소개

- *1941년 시리아 알라포 출생
- *알라포 중고 졸업
- *이집트 알아즈하르 대학교 졸업
- *인도 나드와 툴알라마 대학으로부터 이슬람 법학 및 하디쓰 서사 학위 취득
- *알라포 중 고 교사로 10년간 제임
- *아프린 알라포 이슬람 중.고등학교장
-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 알히라 쇠밀라 대학 교수
- *파키스탄 파루끼야 대학 대학원장
- *파키스탄 신드 대학교로부터 박사 학위 취득
-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쿠웨이트 종교성 파견 선교사
- *이슬람 법학 박사

저서

- *꾸란 낭송법에 관한 저서 2권
- 1. 알우끄들 자-밀
- 2. 알 주-만
- *이슬람의 사회생활 3권
- *제 1대 칼리프 아부 바크르 앓씨디-끄
- *제 2대 칼리프 우마르 알파루끄
- *하디쓰에서의 4대 학자와 사상
- *4법학파의 사상과 교육

- *성 꾸란 집대성의 배경
- *이슬람 경제
- *이슬람법의 근본
- *하나님의 사도 무함만의 생애1
- *하나님의 사도 무함만의 생애2
- *하나님의 사도 무함만의 생애3
- *이슬람의 4대 학자의 생애
- *이슬람의 믿음
- *이외 이슬람 서적 다수 집필